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4/17℃ 목포 5/15℃ 여수 5/12℃

단기 4343년 (음력 2월 15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636호 1판 2010년 3월 30일 화요일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제 2의 창학원년, 출발 2010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기뢰폭발설·오폭설 난무속 실종자 단 1명도 못 찾았다

천안함 침몰 나흘째

천안함 참사 이후 나흘이 지났는데도 사고 원인이 오리무중이다. 생존시한을 넘겼는데도 단 1명의 실종자도 찾아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기뢰폭발설, 북한 개입설에 이어 한미합동훈련 오폭설까지 사고 원인을 둘러싼 추측과 의혹만 난무했다. 〈관련기사 3·4·6면〉

무엇보다 애초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알려졌던 기뢰에 의한 폭발설이 29일 다시 제기됐다. 정부는 26일부터 28일까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4차례의 안보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내부 폭발 ▲암초 충돌 ▲기뢰 폭발 ▲어뢰 공격 등 대략 4가지로 추정하고, 이 가운데 기뢰폭발 가능성에도 주목하면서 정밀 분석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도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은 6·25 전쟁 당시 4천여기의 기뢰를 옛소련으로부터 수입해 3천여기는 동해와 서해에 설치했다"면서 "북한 기뢰가 흘러들어와 우리 지역에 있을 수 있다"고 기뢰 폭발 가능성을 시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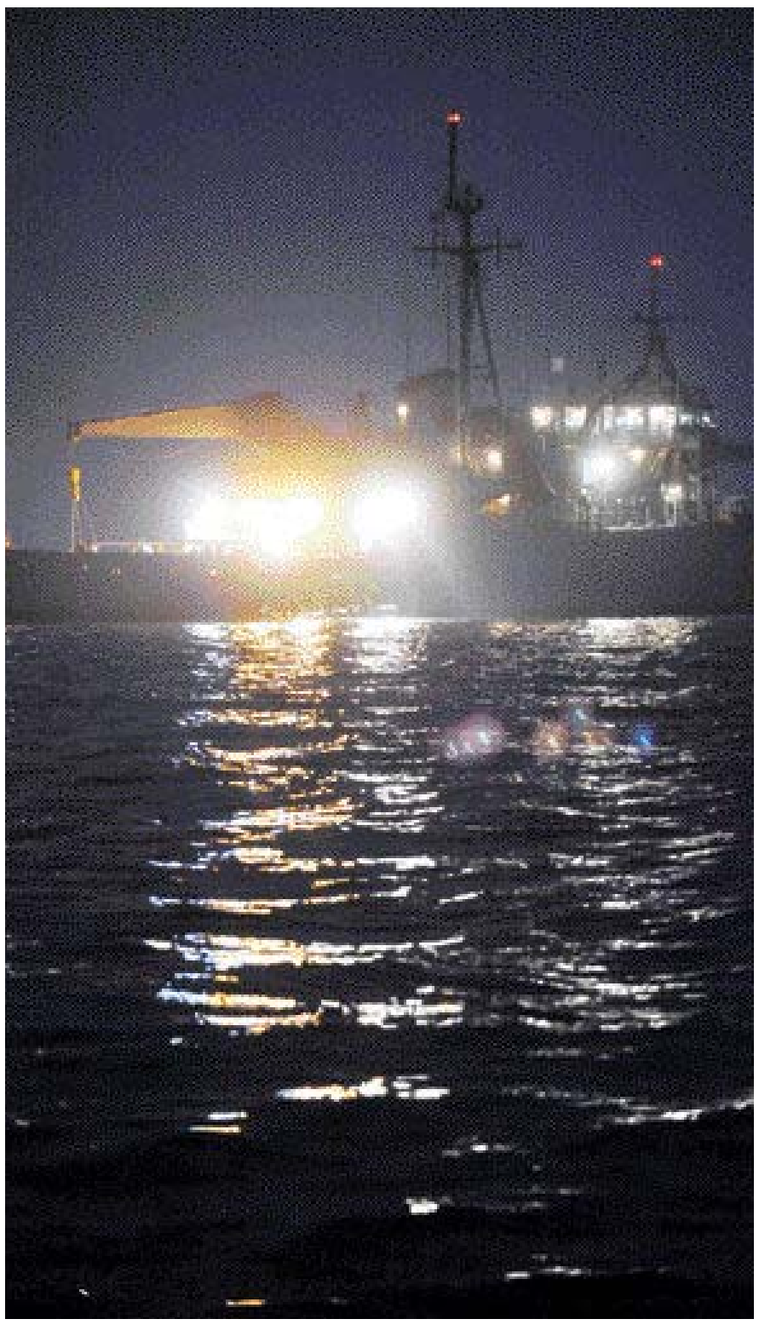
하지만, 사고 당일 밤 청와대 관계자는 "기뢰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하는 등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 설명으로 의혹을 샀다.

또 이날 일부 언론은 "천안함은 사고 당시 한미 양군이 벌인 '2010 독수리훈련'에 참가 중이었고 일부 함정들은 훈련 당시 함포사격훈련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천안함 침몰사고의 원인을 외부타격에 의한 것이라는 일부 생존 승조원들의 주장과 사고 당시 약 20여 분간 강력한 함포사격 소리를 들었다는 백령도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한미 간 합동 훈련 중 오폭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미 독수리훈련과 천안함 침몰 사건과의 상관관계'를 묻는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서로 연관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도 공식 브리핑에서 "천안함은 경계 임무만 수행하는 함정"이라며 "해당 수역은 (합동)훈련 구역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군은 두 동강 난 함수와 함미가 가라앉아 있는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본격적인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군은 특히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함미의 탐색·구조를 위해 수중의 어뢰갑판과 해상 선박을 로프로 연결한 뒤 SSU 요원들이 쇠망치로 선체를 두드려 생존자 여부를 확인했으나 안타깝게도 내부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 시각인 29일 오후 6시30분이 속절없이 흘러간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희망의 불빛되길… 천안함 침몰 4일째인 29일,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백령도에 투입된 아시아 최대의 수송선 광양함이 서치라이트로 어두운 밤바다를 환하게 비추고 있다. 천안함 함미가 발견된 이날, 실종자 구조에 나선 잠수요원들이 함미를 쇠망치로 두드렸으나 내부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실종자 가족과 국민을 안타깝게 했다. /백령도=김진수기자 jeans@

광주일보·광주방송 공동 민주당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여론조사

강운태 31.2% 박준영 32.6%

정동채 20.4% 주승용 19.1%

이용섭 15.0% 이석형 10.0%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의 가상대결에서 민주당 강운태 국회의원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선두를 달렸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광주일보와 광주방송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27~28일까지 이틀 동안 광주·전남지역 유권자 각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여론조사에 따른 것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0% 포인트였다. 〈관련 기사 4면〉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 지지도에서는 강운태 의원이 31.2%로 선두를 달렸다. 이어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장관이 20.4%, 이용섭 의원이 15.0%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며 1강 2중 구도를 보이고 있다. 부동층은 33.4%였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실시한 본보 여론조사에서 비해 지지율이 6.2%포인트 올랐으며, 정 전 장관은 최근 양형일 전 국회의원과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지난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 무려 12.4%포인트가 상승했다.

이용섭 의원도 6.1%포인트 상승하긴 했지만, 지지도 상승폭이 큰 정 전 장관에게 2위 자리를 내줬다.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후보 지지도에서는 최근 '3선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경선전에 뛰어든 박준영 전남지사가 32.6%로 1위를 달렸다. 이어 민주당 주승용 국회의원이 19.1%로 박 지사를 뒤쫓았으며,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10.0%의 지지율을 얻었다. 부동층은 38.3%에 달했다.

박 지사는 지난 2월 본보 여론조사에 비해 7.4%포인트 상승했지만 주 의원과 이 전 군수는 각각 0.6%, 2.2%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동층이 30~40%에 달해 향후 부동층과 후보 간 행보에 따라 경선 판도 변화도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성·연령·지역·학력·직업·소득별 등 기본사항과 민주당 시장·도지사 후보 지지도 등 7개 문항으로 이뤄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올 수능 난이도 작년과 비슷

외국어 다소 까다롭고 수리 쉬울 듯

올해 11월18일 실시되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외국어(영어)는 약간 까다롭고 수리는 쉽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7면〉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성열 원장은 29일 2011학년도 수능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수능 난이도를 지난해 수준에 맞추겠다. 결코 어려워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수능시험 난이도가 적정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일부에서는 작년 수리 및 언어영역이 너무 쉽게 나와 올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했으나 김 원장은 이들 영역도 어렵게 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년보다 까다로웠다는 평가를 받았던 외국어는 올해도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약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EBS 교재에서 지문 등이 많이 출제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김 원장은 설명했다.

김 원장은 또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간 유·불리 차이가 없도록 난이도를 조정해 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앞서 밝힌 대로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EBS 수능 교재와 연계를 강화해 문항 수를 기준으로 평균 70%를 출제한다.

2011학년도 수능시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고 황금사자기 우승 ▶18면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